朝鮮日報

十日夕刊八面
發行人 申錫雨
編輯人 金光洙
印刷人 朴昌根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發行所 朝鮮日報社
振替京城(光)二三〇〇番

時評 米國의 功名

×

『모라토리움』은 莫大한 犧牲을 치르며 成功하엿다 새로운 『후-버-』 『人氣』라는것이 世界의 市場으로 바람을 어더 世界의 市場으로 生氣가낫든지 米國의 政治家들은 世界的 大提案을 하기에 여간부지런하지안타 후버氏의 委囑을 바든 『스팀손』 國務卿은 새로히 太西洋을 건너 오늘은 伊太利 모레는 佛蘭西 그글피는 獨逸 그다음에는 英國으로 天馬行空의 바람으로 活躍하고 잇다 戰債는 蕩減 問題外지 잇섯스되 列國의 利害關係는 各各自家의 局見에 얽매이어 이를 勇斷함에 미츠지못하엿든것이 이제에 『모라토리움』을 承認한것은 相互의 窮境이 적은 어려운 까닭이다 이 機微를 보고 世界列國의 軍縮運動은 곳 으키는것은 時宜를 잘본일이다

×

米國은 世界第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 摩天樓에서 汽船 航空機 其他各般의 施設 營造에서 항상 世界第一을 자랑하고 잇다 世界一週에서 獨逸의 航空家에게 數步를 사양한것은 科學의 發達이 獨逸에서 神速한바 잇슴을 말함이어니와 太西洋과 太平洋의 横斷에도 米國은 世界第一을 자랑하려고 努力하엿고 또 努力하고잇다 『모라토리움』을 提唱成功하고 또 軍縮을 提唱하야 多大한 贊意를 모으는 것은 반듯이 世界第一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그와 自負와 意氣에서 出發한 것이다 故 『하딩』 大統領은 華府의 軍縮會議로써 『윌손』의 功名을 대신하야 홀로 得意의 情을 가젓섯고 『윌손』은 民族自決을 提唱하고 또 國際聯盟을 提案하야 一大功名을 차지하게 되엇나 그가 國際聯盟에서 失敗하고 失意의 中에서 逝去한 것은 一種哀弱으로 돌려 보내고 말엇스나 歐洲의 名都市에 『윌손』 거리가 생기고 마치 小弱民族의 救主인 것가티 崇仰되든 것도 米國의 大와 强과 그 富를 기이 때문이다

×

『녹쓰』의 滿鐵中立提案이 지금에는 外交界의 一笑話로 남어 잇섯스니 이도 功名心의 一衝動인 것은 의심업다 唯名主義?라고 더러 닛코 中立提案으로 名字를 記憶하게 한 것은 一成功이라 할가? 滿蒙中立이 列國에게 큰 利害關係가 업고 日露兩國에서는 當面한 重大利害임으로 소리만 것고 잘 되지 아니하엿스니 그는 機會를 捕捉함이 밝다고 할 수 업다 『루스벨트』가 日露의 講和를 斡旋한 것은 또한 所謂 竹帛에 이름을 드리는 類이나 이러한 일이 大衆的 全人類的 見地에서는 가지지 아니함이 한 缺陷이다

×

現在의 列國政府는 모다 軍備 手入에 헐덕인다 그러나 軍備를 주릴수도 업는 것이니 이 판에 財政緊縮을 오게 할 수 잇는 一般的 軍備縮少를 提案하는 것은 成就의 望이 적지 안코 또 한 功名을 얻우기에 適當한 機會일 것이다 『후버』氏는 事務家의 出이라 한 英雄的 心法은 안 가진 양하나 그러나 現世界의 國際的 諸機構에 잇서 곳 잘 大方의 需應할 題目을 捕捉 提唱하니 米國 今日의 國情은 이러한 人物을 길러 주기에 넉넉함을 因함이다 이 모든 事實은 모다 過程的 事業이라 永久한 人類의 歷史를 빗낼바 아니다 그러나 米國 現下의 過程이 實主義的인 平凡한 過程하고 잇다 하면 또한 怪常할바 업는 것이다

獨逸國權黨首領 『영』案全廢를提唱

現下의 獨逸은 極度로 疲困 唯一한 活路는 賠償全廢에

【伯林電】 獨逸國權黨首領 후겐베르크氏는 후-버-案成立과 同時에 國權黨員에게 呼訴하는 怪氣焰을 擧하야 새로히 政府에 肉薄하는 陣容을 組織하얏다 獨逸은 經濟的으로 全然 疲困狀態에 잇다 只今은 奉國家가 地面에 나가 동그라지 審判으로부터 十어라는 號를 세이기 前에 후-버-氏가 붓들어 이르키여 일로써저우 죽아옷(打倒)을 免한 狀態에 不過하다 元來가 疲勞한 몸일으로 또 어느 때 地面에 나가 동그라질지 몰은다 賠償을 休止한다 하드라도 每年 獨逸의 支拂하는 十五億馬克의 利子와 元金償却과는 獨逸人을 永久히 스게 못하게 하고 잇다 賠償을 休止하드라도 間接賠償은 依然進行한다 我等의 努力은 『영』案 그를 건을 全廢하지 안흐면 안된다 巴里協商은 영案을 更히 確實的의 것으로만 드럿다 賠償金을 全廢하라! 그러치 안흐면 外債利子를 全廢하라! 兩者를 함께 支拂하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獨大統領의 非常時緊急令

獨逸의 財政的 信用을 維持키爲하야 八日公布

【伯林八日發電通】 獨逸大統領 『힌덴부르그』 元帥는 難局에 在한 獨逸의 財政的 信用을 維持키 爲하야 八日 非常時 緊急令을 發하야 民間實業會社로서 所有資産價格 五百萬馬克을 超한 者에 對하야 政府는 總計 五千萬馬克을 限하야 債務를 保證키 爲하야 擔保物件으로 外利用할 權限을 附與케 될 旨를 公布하엿다

헤-그賠償條約 樞府에서 審議

【東京九日發電通】 『헤-그』 賠償條約은 十日 閣議에서 決定한 後에 即時 御諮詢을 奏請하기로 되엿는바 條約이 今回에 成立하고 『후-버-』 大統領 『모라토리움』案에 關係가 잇는 까닭에 樞府는 即時 九名의 委員에게 附託하야 審議를 急히 하기로 되엿는바 委員長은 金子堅太郎子나 富井政章男이 될 模樣이다

支拂猶豫案 細目協定會議 來週金曜開催

【華府八日發電通】 戰債賠償金 『모라토리움』 實施細目을 協定키 爲하야 倫敦에 開催케 될 關係諸國代表會議는 佛蘭西側의 希望을 尊重하야 來週 金曜日부터 開催될 模樣인바 米政府도 細目決定에 對하야 專門家를 參加시킬 意向으로 目下 그 人選을 急急히 하는 模樣이다

信用設定交涉次 國立銀行總裁渡英

金融界의 窮狀을 救濟코자

【倫敦九日發電通】 獨逸國立銀行總裁 『루-터-』 氏는 九日 午後 『伯林』으로부터 飛行機로 當地에 來하야 駐英獨逸大使와 會談한 後에 即時로 巴里에 向하얏다 氏는 獨逸金融界 當面의 窮狀을 救濟하기 爲하야 英、佛兩國銀行에 對하야 獨逸國立銀行兩國에 對하야 資金 四千萬磅의 信用設定을 交涉하라고 하는 것인대 氏는 巴里行列車로 同乘한 英蘭銀行總裁 『노-만』 氏와 懇談을 하엿다

戰鬪艦建造 計劃延期를 慫慂

英佛兩國、獨逸에

【伯林九日發電通】 英、佛兩國은 獨逸國立銀行에 對한 新借款의 成立을 容易케 하기 爲하야 第二의 戰鬪艦建造計劃의 延期를 慫慂하엿는바 獨政府는 此를 冷淡히 迎하야 『뿌류닝』 首相과 如한 것은 右에 應하면 徒然히 獨逸國民黨의 反對를 돕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잇는 模樣이다

北滿不祥事件 嚴重抗議 張長官에게

【哈爾賓九日發電通】 先般來로 北滿에 잇서서의 朝、日、中間의 不祥事件에 關한 日、中官憲의 交涉도 遲延되는 한편 不祥事件이 頻發할 憂慮의 形勢에 잇슴으로 大橋總領事는 十日 朝十時 行政長官 張景惠氏를 訪問하고
一、懸案의 可及的 解決
二、民衆의 取締
三、是非曲直을 闡明하야 責任者를 處罰할 것
等 其他에 對하야 嚴重한 談判을 行하기로 되엿다

遞相園公訪問

【東京九日發電通】 小泉遞相은 九日 午前十時 西園寺公을 訪問하고 時局問題에 對하야 懇談하고 同三十分에 辭去하얏다

米佛協定成立으로 獨逸에서는 安心

獨逸의 內政과 經濟界 復興에 偉大한 影響을 確信

【伯林電】 『후-버-』 賠償延期案에 關한 米佛交涉의 一致에 依하야 二週間이나 沈默을 固守하며 不安을 感하고 잇든 獨逸의 政界 經濟界는 자못 깃분 빗이 떠보인다 이 二週間 獨逸이 걱정 中에서도 沈默을 직히고 잇섯든 것은 『뿌류-닝』 政府가 『후-버-』 氏의 提案에 無條件으로 贊成하고 맨 먼저 回答을 보낸 當時 佛、米間에 如何한 交涉이 進行되든지 關口할 資格이 업섯든 까닭이며 그만큼 今般 巴里의 一致로 安堵하는 喜色을 보이게 된 것이다 『벨리나-·타-게푸랏트』 紙는 七日 『후-버-』 氏의 提案成立을 一期로 하야 世界는 只今의 世界財政界의 資本의 半端인 分配가 世界的인 經濟에 惡基礎를 만든 것임을 覺悟하기에 至하얏다라고 論하고 다시 『후-버-』 案에 依한 直後의 期待는 目下 目睫間에 臨迫하는 困難期 聯邦銀行에 對한 不安의 氣分이 『모라토리움』 成立에 依하야 一掃되고 具體的으로 말하면 國際決濟銀行의 獨逸에 保證한 一億딸라-의 再割引이 六月六日로 期限滿了되는 것을 延期하고 更히 再割引 『크레듯트』의 擴張을 希望하고 잇다 一般의 論調로 보면 巴里의 一致는 적어도 이 一年間 獨逸은 原則으로서 十六億馬克을 一分도 外國에 支拂할 必要가 업다는 心理的인 安心으로서 이 것이 內政及 經濟의 復興에 與하는 影響의 偉大한 것을 確信하고 잇는 듯하다 또 保證基金及 實物交付의 佛國條件에 對하야는 國粹黨이 多少의 揶揄를 하는 以外 獨逸政府與黨에서는 큰 問題로 하고 잇지 안는 모양이다

外相과 懇談 宇垣總督

【東京九日發電通】 宇垣朝鮮總督은 …

뭇쏘리니-氏 軍縮贊成을 聲明

【羅馬九日發電通】 伊太利首相 『뭇소리니』 氏는 米國務長官 『스팀손』 氏와 軍縮促進協議를 行하엿는바 首相은 記者團에 對하야 軍縮贊成을 聲明한 後 余는 全伊太利에 對한 一萬門 程度의 軍縮은 何時든지 受諾한다 伊太利의 平和政策은 世界의 經濟危機를 救함에는 먼저 世界의 政治的 道義的 危機를 匡救치 안으면 안된다는 信念을 굿게 한 까닭이다라고 述하엿다

今月中에 財整審議會開催

【東京九日發電通】 …

北滿各地에 排日氣運濃厚

萬寶山事件과 中國側의 宣傳

【哈爾賓九日發電通】 中國側의 民族取締가 不徹底한 까닭에 朝鮮人兒童藥行事件과 一面 彼의 朝鮮人民會에 中國巡警의 侵入하야 事務員을 有無를 불치 안코 引致하는 等 北滿에 잇서서 中國側의 朝鮮人壓迫은 只今 高潮에 達하는 形勢에 잇서서 哈爾賓及 中東線 沿線 各地 其他 奥地의 朝鮮農民 數萬은 何時에 中國暴民의 危害를 바들는지 몰나 極度의 不安에 陷하야 戰戰兢兢 하고 잇다 萬寶山事件 以來로 中國側 要人의 大多數、異口同音으로 그 잘못은 日本側에 在하다고 하며 中國民衆間에는 此際에 徹底的으로 排日의 空氣를 醸成하자는 呼號가 盛하야 此際임으로 些細의 事件은 收拾할 수 업는 事態로 잇슴으로 大橋總領事는 朝鮮과 日本人에 向하야 自重하라고 警告를 與하야 萬全之策을 講究하고 잇다

總督은 九日 午後三時 幣原外相을 訪問하고 赴任의 人事를 述하고 朝鮮事件의 善後措置와 間島問題에 對하야 懇談을 行하고 四十五分에 辭去하엿다 滿洲地方의 治安警備問題等에 對하야 …

王外交部長 重光代理와 交涉

朝鮮事件에 對하야

【南京九日發電報聯合】 王外交部長은 朝鮮事件에 關하야 重光代理公使와 直接交涉키 爲하야 明夜上海에 向하기로 決定하엿다 今回의 兩氏의 折衝은 具體的 交涉에는 入치 안코 單只 損害의 共同調査委員의 派遣提議에 옷칠 模樣이다

眞相調査코자 公正會調査員派遣

貴族院各派는 今番騷動問題를 重視

【東京九日發電報聯合】 朝鮮各地에 잇서서 朝中人衝突事件의 重大責任에 鑑하야 貴族院各派는 此를 重視하고 研究會는 眞相을 調査한 後에 外務當局의 軟弱的 態度를 糺彈하려고 하고 잇는 바 公正會는 九日 政務調查會에서 協議한 結果 同問題는 日本의 滿蒙對策과 朝鮮統治上에 頗히 重大問題임으로 眞相調査의 必要가 잇다 하야 調査員 二名乃至三名을 滿洲及 朝鮮에 派遣하야 其結果에 基하야 方針을 決定 確立하자는 意見이 一致하고 十日 總會에 附議하야 正式 決定하기로 되엿다

貴族院各派 町野出張

町野 出張 … 富士見의 別莊으로 避하엿는바 事件 中에 서 沈氣旺盛하게 時局問題에 對하야 左와 如히 말하엿다 『후-버-』 景氣는 株式市場等 …

政友委員詰問

朝鮮事件에 對하야 九日原拓을 訪問하고

【東京九日發電報聯合】 朝中人衝突事件에 關한 政友會 實行委員兒玉、藤井等 六名은 九日 午後三時에 官邸로 原拓相을 訪問하고 우선 委員으로부터 萬寶山事件에 關聯하야 今回 事件의 勃發을 憂慮하고 잇섯다 게다가 事件 突發時에 總督總監 局長課長等이 다 不在한 것이 이와 가트은 事態를 惹起케 되엇다고 생각하는바 如何한가 하고 質問함에 對하야 原拓相은 『今回의 事件은 眞實로 遺憾인 바 그와 가트은 일로 生起하엿다고는 생각지 안는다』 고 答하야 委員은 다시 今番 朝鮮總督府 外務 拓務의 責任을 追窮하여도 拓相은 巧妙히 此를 避하야 不得要領인 答辯을 與하야 結局은 그대로 政友會 委員은 同五時 三十分에 辭去하엿다

萬寶山事件交涉 朝鮮事件으로 不進捗

【奉天九日發電通】 萬寶山의 朝鮮農民은 其後 日本警官 四十七名의 嚴重한 警戒와 保護下에 中國暴民에 依하야 파무친 水路工事에 着手하고 잇는바 同問題에 關한 石射吉林總領事와 臧吉林交涉員과의 交涉이 朝鮮事件으로 해서 進捗치 안코 交涉員은 張作相氏의 指示를 受치 안흐면 交涉을 進行할 수 업다고 하엿슴으로 張作相氏、林總領事가 歸奉後에 奉天에서 交涉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日本警官은 同問題가 解決될 時外지 現地에 잇서서 朝鮮人을 保護할 方針이다

大藏省督促에 各省無回答

【東京十日發電通】 本年度 豫算節約에 對하야 五千四百萬圓의 今年度 豫算節約案은 時日이 遲延될 사록 節約이 困難케 됨으로 大藏省은 各省側 回答을 督促하고 잇는바 各省의 復活要求의 審議가 遲延하야 九日外지 아즉 一省의 回答도 업슴으로 井上藏相은 十日의 閣議에서 回答을 督促하는 同時에 原案의 承認을 要請할 意向이다 그런데 旣히 內務省、陸軍省等 原案의 六、七割外지의 復活要求의 態度를 示한데 잇서서 今後의 折衝은 波瀾曲折이 豫想되여 閣議에서 最後의 決定을 보게 될 것은 結局 二十日 後에야 되리라고 觀測된다

減俸反對의 潛行的 活動 遞信雇傭員大會

【東京九日發電通】 減俸騷動 以來로 潛行的 活動을 繼續하고 잇든 遞信省의 雇傭員 約 二百名은 九日 午後 二時 省內에 集會하야 遞信省 雇傭員會 指導下에 減俸絶對反對 雇傭員會 壓迫反對、官廳內 營繕 … 反對 其他 待遇에 對 …

道路事長은 九日 午前 九時半에 江木鐵相을 病院으로 訪問하엿든바 江木鐵相은 氏에 對하야 一週間 假量이면 退院할 생각이라고 述하고 今月中에 第一回 臨時財政整理審議會를 開催할 것을 協議하엿다

產業振興上 公債政策을 緩和

民政黨產業對策委員會

【東京十日發電通】 民政黨은 行政財政及 稅制의 三大整理와 가티 產業對策에 注力하야 目下 黨內에 設置된 產業對策委員會에서 調査를 進行하고 잇는바 幹部에 잇서는 이로써 아즉 不足하다 하야 產業振興의 重要對策으로서 時局 救濟 統制及 電話事業의 維持及 建設에 對한 民營에 關하야는 우선 俵、添田、中野、川崎、富田氏 等의 委員을 選擧하야 別個로 具體案을 考究하고 잇다 따라서 九日 午後 本部에 開催된 國政改革委員會에서도 此에 關하야 協議된 結果 與黨의 國政改革案 中에 產業上 當面의 對策으로서 右 製鐵合同及 電話民營의 三大問題를 撰擇하야 此의 實現을 爲하야 一層 注力하기로 一致하다 그러고 此와 同時에 產業振興上 此際에 公債政策을 緩和하야 時局 必要한 生產公債의 發行을 許하자는 意見은 今後 一層 黨內에 有力하게 될 模樣임으로 幹部는 此가 財界에 미칠 影響 其他 諸般의 實情에 對하야 愼重히 講究하야 具體案을 得한 後에 適當히 時期를 待하야 政府에 進言할 方針이다

農林商工兩省 合倂反對

【東京九日發電通】 農業諸團體聯合協議會는 九日 農業團體聯合會에서 農林商工兩省 合倂反對意見을 決定하고 委員을 選擧하야 內閣及 農林商工兩省 民政兩院本部에 此를 提出하엿다

智識階級의 失業防止決議案

失業防止對策特別委員會 近近政府에 提出할터

【東京九日發電通】 九日 失業防止對策特別委員會는 智識階級 失業防止에 關한 決議案을 決定하엿는바 十五日 頃 對策部會에서 決議한 後 政府에 提出할 模樣인바 同決議案에 列擧된 緊急實施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如하다
一、敎育制度의 改革及 敎育觀念의 是正에 關한 것
(一) 學校의 種類、數、配置及 學校敎育의 內容을 社會의 需要에 適合케 할 것
(二) 學校卒業에 附隨한 特權을 廢하고 學校로 하여금 無用한 上級學校의 準備機關인 弊를 矯하야 卒業生及 父兄으로 하야금 傳統的 特權意識에 拘碍치 안코 各各 分野에 職業을 求할 態度를 取하게 할 것
二、產業振興 其中 國產獎勵에 關한 것
產業을 振興하고 就勞機械를 豊富케 하기 爲하야 政府는 臨時產業審議會 等의 活動을 促進케 할 것
三、以上 外에 職業指導의 徹底移植、民의 保護獎勵、職業輔導、少額俸給者投職施設 擴張 等

軍縮對策委員會設置說擡頭

【東京十日發電報聯合】 來春의 國際聯盟主催의 軍縮會議에 關하야는 各國이 다 그 準備에 着手하야 잇슴의 米國에서는 通般의 『후-버-』 大統領의 聲明에 關聯하야 渡歐한 國務長官 『스팀손』 氏가 內命的으로 一大活躍을 行하고 잇스며 英國은 또 한 準備委員會를 設置하야 着着 調査研究 中임에 反하야 日本만이 아즉 首席全權의 詮衡도 行치 못하고 準備委員會는 그 後에 開하는 階段으로 된 模樣으로 政府 內에서는 此際 될 수 잇는대로 急速히 全權을 詮衡하는 同時에 準備委員會를 設置하자는 意向이 强烈히 主唱하게 되엿다 그런데 準備委員會에 對하야는 日本의 對策을 確立하기 爲하야 有力한 一大委員會를 設置하야 여긔에는 若槻首相을 비롯하야 關係閣僚、軍部의 巨頭와 政黨과 共히 民間有力者도 參加케 하야 最高會議를 開設할 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게 行하고 잇슴으로 或은 近近 一大軍縮對策委員會가 設置될 것이 아닌가 하고 觀測케 된다

人事消息

▲宇垣新總督 十四日 午後七時 京城驛着 列車로 新着任

八面鋒

○ 獨逸國權黨首領이、영案全廢를 絶叫
○ 此所謂 得隴望蜀!
○ 『뭇소리니-』가 軍備縮少에 贊成
○ 더 업시 贊成이 아닐다、大砲一萬門 保有를 條件으로
○ 軍備縮少하느니 보담 『군치縮少』 하는 것이 엇대?
○ 太平洋橫斷機가 『솔로몬』에 不時着
○ 아모래도 太平洋은、물우 홍로 단이는 것이 太平한 模樣

太平洋橫斷의 壯擧遂挫折

給油機와의 連絡失敗로 『솔로몬』에 不時着

【솔九日發電通】 米國飛行家 『로빈스』 『쫀스』 兩氏의 太平洋橫斷機는 當地 飛行後 『베-링그』 海峽에 向하엿는바 小雨가 始作하며 濃霧가 甚하야 給油機와의 連絡豫定과 如히 되지 못하고 눈물을 먹음고 돌켜 米國 西部標準時 九日 午前 六時 五十分 當地에 着陸하엿다 太平洋橫斷의 壯途는 드듸여 失敗로 되고 마럿다

後부터 惡化한 『베-링그』 海 一帶의 雨와 濃霧로 因하야 數回에 亘하야 몰넘서 『후오-트워-스』 號와 給油機와의 連絡하며 『놈』 附近의 旋回飛行에 一時間 五十八分을 空費하여도 油機와의 油絡의 目的은 全部 失敗되고 말엇다 『베-링그』 海峽方面 一帶의 小雨가 석긴 濃霧는 더욱 甚하야 展望이 全然 되지 안흠으로 드듸여 飛行繼續을 斷念하고 쏘아틀 出發 以來로 卄六時間 五十二分으로써 着陸하게 된 것이다 『쫀스』 氏는 悲痛한 얼굴로 말하되

兩飛行士談

【솔九日發電通】 『베-링그』 海 特有의 濃霧와 雨에 阻止로 『쏘아틀』 東京間 無着陸 橫斷의 雄圖는 失敗로 돌아가고 『솔로몬』 飛行場에 不時着陸한 것은 極北白夜가 全然 明朗이 된 『놈』 地方時 九日 午前 三時 二十分 (米國 西部標準時 午前 六時 五十五分) 이다、機로부터 降한 『로빈스』 『쫀스』 兩氏로부터 確聞함에 依하면 地上에서 第二回 給油를 完了로 본 것은 誤見으로 본 實은 『놈』 到着 …

여긔外지 飛來하야 처음으로 濃霧의 두려움을 깁히 經驗하엿다 『아라스카』 內陸은 天氣도 조와서 크게 意氣를 내여서 왓는바 『베-링그』 海에 각갑게 됨에 따라서 俄然 給油에 뻬(骨)가 싸지는 것과 가튼 사나운 濃霧의 阻害를 安하야 이와 가태서는 假令 無事히 여긔에서 給油를 行하드라도 前途의 飛行繼續은 不可能하리라고 만 諦念하고 着陸하엿다

北平 白國大使逝去

【北平九日發電通】 白耳義公使 『왈 …

三姓堡現場에서 特派員 中樂兩發信 ①

囊財털어出資 自力으로開墾工事

중국인에신경은날카로우나… 日本人資本은毫無

【現場에서第二信】 만보산개척농민들은 만보산수전조합(萬寶山水田組合)을조직하야 매일경삼원오십전식을 출자하여가지고 금번공사비의일부에 충당하엿다는바 그금액이 구백오십원에 달하엿고 그외부채로중국로동자에게 지불할임금 오백원 개간재료비오백원 식량사천원 종자등오백원등의 막대한채금을 부담하고잇스니 그과중한운명이야말로 참담하다 더욱가옥을 건축하여야겟는데 그농력이업서 문제라한다 수전조합에서는 장춘조선인금융회의 알선으로 금이천원을 차용하고저한다는바 될는지아직 미상하다한다 그리고금번사건이 일어나며중국인의신경을 가장충동한것은 배후에경제적으로 일본자본이움죽이지 안헛나하야 날카러운눈을 던지고잇스나 이번공사는 순전이 조선농민이 최후의경제를경도하야 개간하는것이고결코일본인의 자력이움죽이지 아니한다

排日示威翌日 長春城內訪問

【長春에第一信】 만보산(萬寶山)문제는이제와서는중대한국제문제로서 전환하야 장래엇더한귀결을지을는지잣못예상을 불허한다 이문제에대하야먼저중국측에서 엇더한견해와 태도를가지는지 탐색하고저노력하엿스나금일(칠월팔일)까지 그긔회를 못어덧스나 다행히 최덕윤(崔德潤)씨의 알선으로 장춘현장마중원(長春縣長馬仲援)씨를면회하게되엿나 이날은그전날장춘청년(長春靑年)과 학생단(學生團)과 민중의시위운동이잇슨후아즉그여염이사라지지아니하고 조선인에대한 감정이 험악하야 조선인은 보기도 어려운 중이엇스나 고마현장을찻기로하엿다 성내에발을들여노차곳곳마다 打倒侵我領土的鮮農 打倒日本帝國主義走狗鮮農 萬寶山農民保我山河! 同胞 速醒 一切犧牲 등표어를 붓친조희에써서 붓치고학생들이곳곳마다서서배일긔세를올리고잇다이험악한것을돌파하고 최덕윤김리상량경석씨와가티 현청에이르기는 오전십일시이엇다 응접실에 등한현지사는 다음과 가티말하다

『日本側交涉엔 不應할豫定

조선인은보호하게다』 長春縣知事 馬仲援氏談

마지사(馬知事)는 다음가티말한다 『금번사건은 최초에 중국인 호영덕(郝永德)이가와서 귀회조선인오륙명으로하여금개간수전을 경영한다하기에 구두로 승락한것이다 그런데이토지구역은 공안국제이구(第二區)제삼구(第三區)로 난우어잇서 제삼구의지주는 토지차용의 승인을하엿스나 제이구지주는 승인을하지안헛다한다 그후 얼마지나서제이구주민으로부터 아모 승락업는토지를 조선농민이 무리하게파서 수호(水濠)를 만드르니……

間島暴動共産黨員 起訴三百名突破

十二名豫審에, 四名釋放 今日第十五次起訴

지난사월초순에 간도령경(間島領警)에체포되어 경성으로이송되엇든공산당원(共産黨員)서동환(徐東煥)김형권(金瀅權)등십륙명은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사상문제 삼포(森浦)검사의손에서 취조를밧든중 십일오전에 긔소(起訴)결정되어 안동희(安東熙)등십이명은치안유지법(治維法)위반 소요(騷擾) 방화(放火)폭력행위처벌규측위반(暴力行爲處罰規則違反) 상해(傷害)강도상인(强盜傷人)폭발물취체규측위반(爆發物取締規則違反)등팔개죄명으로동법원제일예심(第一豫審)에 회부되고 리종철(李宗哲)등사명은범죄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 석방되엿다는데 그들의 성명과죄명은다음과갓다하며 이것이 간도사건의관계자로제십오회이며긔소된인원삼백이십명을초파하엿다한다

◇起訴者

▲徐東煥(崔一)治維法違反
▲金瀅權(金浣執)治、騷擾、放火、傷害
▲安東熙(安東化)治、騷、放、暴、强傷、爆
▲崔明順(崔龍順)治、騷、放、傷、强傷、爆
▲朴東浩(朴明倫)治、騷、放、暴、强傷、爆
▲洪光植(洪東植)治、騷、放、傷害、强傷、爆
▲嚴承萬(嚴波)治、騷、放、暴、强傷、爆
▲許明畵(許昌、許一男)治、暴、强盜
▲安好石 治、强盜
▲石磐活 治、放、暴
▲崔鉦淵 治、强
▲金龍根 治、强

◇不起訴者

李宗哲 鄭昌極 朴東洙 朴在厚

×裵東健一派와 ×併合審理要求

제이차폭동과련락밀접 ◇全滿洲를震撼!

간도서동환(徐東煥)일파는간도연길현(間島延吉縣)에서조선××과공산케도사회의실현을목적하고 농민협회(農民協會)를 조직하야 한국××위원회(韓國××委員會)에가입한후 작년오삼십폭동(五、三十暴動)이래 연길현일대(延吉縣一帶)에서폭동을거듭하고 방화(放火)략탈을한것이라는데 그들의 죄명이폭발물취체규측(爆發物取締規則)소요(騷擾)등의 팔개죄를 범한만치 그들의폭동은 만주천지를소란케한것이라는바 작년십일월이차간도폭동(第二次暴動)의주동자로동법원예심에계속되어잇는배동건(裵東健)일파의책동과관계가 기픔으로병합심리(倂合審理)를요구하엿다한다

青總은別立 聲明書發表

시내에잇는 각계를 망라하야조직하엿다는 각단체의협의회(各體協議會)에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에서는정식으로참가한일도업고 또청총대표로써실행위원에 선출된이도업다는바 청총으로서는 우선이번재만동포의 밧는모든문제의그근본원인을 지적론난하야 투쟁대상을인식하며재만동포옹호에대한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준비중이라한다

朝鮮語에關한 語學會의講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동회의 월례회(月例會)를십일일오후세시에 수표정(水標町)사십이번지 조선교육협회내에서열고 다음과가튼 연제와연사로 강연을하기로 하엿다는데 다수청강을하기바란다한다

▲演題 朝鮮語에關한古今人物 權悳奎氏

端川一次事件被告 五名審理코休廷

일회공판에심리거절튼피고 審理問題로一時波瀾

【咸興支局電話】 작년칠월에 함남단천 제일차사건(第一次事件)의주동자김병묵(金炳默)김용수(金琛洙)등십이명에대한폭력행위처벌규측위반(暴力行爲處罰規則違反)과상해죄(傷害罪) 피고사건은지난륙월십일일 함흥(咸興)지방법원에서제일회공판이 개정되엇다가 피고들의 법정투쟁(法廷鬪爭)으로 심리를 진행하지못하엿든중 십일에다시동법원에서 공판이개정되어 오전열한시부터 좌등(佐藤)재판장주심과미창(米倉)검사립회 변호사 한격만(韓格晩)채용묵(蔡容默)한세복(韓世復)제씨의 렬석으로사실심리를진행중이라는데 개정벽두에 피고 김병묵(金炳默)으로부터 심리를 바들가말가하는 문제를일으켜 일시파란이잇섯스나 전일에비하야 비교적 평온하다는데 오전까지에 김병묵 권용수(權容洙)허달규(許達圭)심문귀(沈文龜)김만긔(金萬基)등오명에대한사실심리를 마치고 휴게하엿다한다

十七次로 十六名押來

【今夜에京城驛到着】 四百名間島移送者

작년간도제일、이차폭동(間島第一、二次暴動)의잔당원(殘黨員)으로동북만(東北滿)각지에서폭동을 계속하다가 간도령경에체포된 엠、엘계의공산당원리동우(李東宇)등십륙명은경성으로이……

天眞少年復興會

시내천진소년회(天眞少年會)는 오래동안 침체하고잇든바 지난십일오전부터 ……

間島同胞 冷靜을要望

간도국자가(間島局子街)에거류하는 조선인들은 ……

◇廣漢한三姓堡同胞耕作地帶 (本社特派員撮影)

平壤署活動繼續 檢束者四百餘名

◇晝夜兼行으로取調進行 刑務所收監者一百

親善을圖謀 金品이遝至

중국인피난소로답지 平壤人士精力活動

三陟에不祥事 朝中人이衝突

避難中의中人에同情 만히모히어

問題의東拓經營 土地改良部廢止

따로히존치할필요가업다 總督府當局도贊成

鐵道從業員에制服

三橋警務課長 責任者內査?

兵營自由勞委員會

南朝鮮은水不足 稻作非常이不良

이앙철에강우가부족하야 二三割減收는難免

避難民歸還토록 領事가道에交涉

안동현피난중인오천명의 新義州駐在中國人

平壤商工會議 善後策을協議

避難中人들 漸次店鋪開市

점점예전으로돌아간다 陰鬱한空氣는一掃

今年의御中元은新裝花王!

東洋第一

花(화)王(왕)石(비)鹼(누)

純粹度 99.4%

果然이流行!

花王時代가왓다

實質時代의寵見 新裝花王은 今年中元의선사로第一이란評判을가젓습니다 質로 갑으로두말할것업다 特히家庭의朝夕에업서서는안되는物品인것만큼선사밧는이깃버한다 세가세인것만큼 絶好의선사품이오!

一打 一圓廿錢
半打 六十錢

一打箱半打箱外에새로三個箱도잇습니다 그럴듯한선사품이오 또한상자마다美麗한선사에쓰는조히가添附됨

良品을眞心으로보내십시다

日用品을 사지안코도된다면 그만큼고마운일은업습니다 花王을바드면 一人一個一個月餘의比로한여름동안珍重히쓰게됩니다

조흔物件을 쓰는것처럼氣分조흔일은업습니다 花王은最後의一片까지알맛게풀리어헛됨이업시良品의價値가잘알어집니다

東京 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 大阪

여름위생 수면부족은 생명에큰문제
낫잠에대하야 잠을적게자면단명합니다

『로서아』의유명한 생물학자가 동복(同腹)의 강아지두마리를 따로따로두고 한놈에게는충분한영양만주고 잠을못자게하고 다른한놈은물만먹이고 그대신에 잠을충분히자도록 하엿섯는데 수면부족한놈이 먼저죽엇다고합니다 이실험과가티 모든생물에게는 무엇보다도 수면이필요합니다 더욱히여름은밤이짧고 또밤이되면 서늘한곳을따라산보하고 아츰에는 벌서해가올나와 더워서 늣게잘수도업게된니 더욱히도시생활의 소요함은 정밤중이아니면 조용치안어지는등 관계로안면하여도 수면시간이 부족하여집니다 이므로 를보충하기위하야 낫잠이필요한데 이낫잠은 필요하다는것보다도 부득이한일이라고 하는것이 해당합니다

낫잠의 필요는 원체업는것입니다 대인은일곱시간 내지여덜시간어린애는 아홉시간내지 열시간만 자면조흔것인데 그러나 늣자꼬자고 아츰에 눈을뜨는사람은거이 업는것이고 대개는잠들기까지와 잠깨여서 멀거니지내는시간이 약한두시간은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상과가튼관계로더욱 수면시간이 단축되는것이니 여기서낫잠이 필요하게됩니다 말할것도업시 잠에필요한것은 그수면시간인데 낫잠을자면습관이 된다든가 또는 몸피곤치안으면 잘잠이오지 안는것입니다 이것은망막(網膜)에 광선의 자극을밧는 동오관에여러가지 자극을밧는 관계로신경세포의 완전한 안정을엇지못하는것입니다 잠이올것갓지 안은것을 억지로잘려고 애쓰는것은조치못합니다 낫잠은 꼭날뻬에 적당히한시간쯤 자는것이제일조흡니다 더욱히어린애게는언제든지 충분한수면이 필요하니여름에는 억지로라도 낫잠을재우지안으면 안되는데 잠니들면드반시 배(腹部)에다가 거벼운포단을 덥허주는것이 조흡니다잠이들면 세포활동이 휴식됨으로 체온이갑작이 내리는고로잠자다가 감기도 드는수가잇스니이런점은특히주의하십시요

내가본 내가정
자식의가상과 완고한어버이
爾山 人 ㅈ生

우리가정은 우으로 아버지어머니와 형님부부와 미트로 나의부부와 어린족하들과 모다 열식구가살고잇는데 경제상으로는 남부럽잔케지내는 중류계급의 가정입니다 비록경제상으론 고통을밧지안는다하여도 정신상으로밧는고통은 늘나의몸을 괴롭게합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면의례히부모의소유물로만아는그런격세긔적사상(隔世紀的思想)이우리가정을 지배하고잇는 까닭입니다

나의부모는 늘낡은동양륜리관(東洋倫理觀)으로써 자식의 개청을무시하며 자식의 사상을 못자라게 하려고합니다 자식의말이면 가부를가리지도안코덥허노코반내듯하니 아모리 봉건사상(封建思想)에져지신어른이라한들 마음이잇는자식으로서야 씨그에대하반항심이이러나지안켓습니가 그리하야부모와나사이에는 자연충돌이 이러나게됩니다 충돌이이러나면 어려낫사록 가정은 시끄러워집니다 이럴때마다우리가정에서는 나를일카러 평화의교란자라고하며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보니 결국나만이그들에게 여지업시유린을 당하게된것입니다 내야 반항이하고십허하는것이 아니고 참으라참다못하야 터저나오는 반항인데도 불구하고 나만을가정의 교란자라니 불효자라니하니 도대체우리가정의 불화한원인이 어쎄나에게만 잇겟습니가? 그리고또내가 우리부모에게 반대하는것은 부모그사람이아니요 그의가지신사상그것입니다 남이야 무엇이라하나 우리부모의 가지신사상그것에 대하여는 나는절대반대입니다 부모의 말슴이라고 덥허노코복종할것이아니라 반대할만한 것에는 반대하는것이 도로혀효도 될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맹종하는것만이 결코효도가 아닐것입니다(續)

映畵의花都 헐리웃드의悲哀
深刻化한엑스트라의生計難

【와싱톤發聯合電信】 스크린계의 『스타―』를 공상하고영화의도시 헐리웃드에 쇄도하는자가못쥐 만흔 모양인데 『토―키―』시대가되면서부터는 말과음성관계로 켜아모리 용모가조흔사람이라도 『엑쓰트라마』에도 참례할수가업고 려비가 떠러저 령사관과 경찰의신세를지는 새시들이 결코적지안타 이탄식할만한 상세(狀勢)를 참아못보는미국부인사무국은 전국 각로동긔관파및 부인단체에게 아래와가튼경고서를보냇다한다

일천구백 삼십일년중에『헐리웃드』에 등록된일만칠천오백사십일명의『엑쓰트라』중에일주일 일일평균일한자는 반수가못되는 팔백삼십삼명 이요 이일반편균에 일한자가 겨우구십명이란 애처러운 형편이다 따라서하로라도 놀지안코 일한사는 단한사람도업다 말하자면 밧는급료는 일일평균 십구원오십전이다 이가튼확실치못한 수입으로 생계를유지하기에도 곤난한것은 두말할것이업다고 한다

海濱―――『獨逸의새로운카메라웍』

短篇小說 工場新聞(六)
金南天

『커녁안먹고 어델나가니?』 그가 피무신을신을째 그의모친이 들에까지쏘차나왓다

『괜치안아요 곳단겨올걸!』

그는 공회당을향하야 집을나섯다

관수는길을걸으며 생각하엿다 마음에직각되는것은 파업이다 이곳날째맛냇든사나이의 생각이다 그사나희가 만일그사나희라면 엇더케길천이가권할까? 그것은 그러나물론가능치못할 일은아니엿다 그러면그방울가튼 사나희가? 그럿치안으면 내가알만한누구일까? 그러면 그사나희는여러가지로상상하며 커를어가는 교외의길을걸엇다 그가 공회당갓가히가서 엇던상점의시게를드려다보앗슬때비로 정한시간에서 일분늣남겨노앗섯다

그는 마즈막일분간을뛰여갓다 공회당뒤를 휘―한번휘돌아서 쎈쓰라나무선곳을본즉아모도업섯다 그러나 그러틈한옷을 입은사나희가 그압해와서서 담배를붓첫다 관수는가슴이뛰엿다 그래서언덕을뛰며내려가며본즉 그것은자긔엽헤서일하는 창선이라는직공이엿다

『여!』

그는담배를후―내쑴으며 게손질햇다 관수는좀 견주엇든곳이 어그러진듯한락망을늣겻다―창선이면물론 잘안다창선이는파업이후에 신직공모집에쎄여서들어와 자긔네공장에서일하게된직공이다 이사나희는물론타타人줄과는 아무상관도업섯다 이사나희가 내게무―다고 하는말이잇난말인가?―관수는마음속에좀불평을늣기면서 창수가는길을따라 묵묵히거러갓다

『자네 지난여름파업이웃낫슬때 경상북어엇던사나희맛나본적이잇서?』

창선이는담배를 혹―혹내쑴으며 그에게말햇다 물론장선이말과가치그사나희를맛나인것은잇다 그러나 그는

『그런일업는데!』

하고 머리를내흔들엇다 창선이일홈시자는 타타人줄도아니고 열한글시도 안이엿기때문이다

『업서?』

창선이는 잠간관수의얼골을보앗스나 곳딴것을생각한듯이벌쑥우섯다 그는고개를쓰덕쓰덕하며

『내일홈은 사실인즉 박태순일세!』

그리고 손벽을내밀고 그우에『泰』人자를써뵈엿다 타타人줄열한회수!

관수는 다시금창수의얼골을들여다보앗다 그리고 그순간창수의손목을꼭!쥐엿다

『신용하겟나?』

『밋고 말구!』

길가에서 사람의흔적은적엇스나 손목을갑자기쥐는것이 이상햇슴으로그들은곳손을노앗다

◇畵家林學善氏結婚式 금년에 일본동경미술학교를마친화가림학선(林學善)씨와 권갑순(權甲淳)양의 결혼식을 금월십일일 남대문통식도원에서 김종우(金鍾宇)목사 주례로 거행한다고

不遠千里아들그려 惡漢王『카보네』의父米國에
市俄古惡漢黨巨頭가잡혀서

【伯林發聯合電信】『時不利兮騅不逝』의格으로 運盡勢窮하야 警察의그믈에걸려오는三十日에判決言渡를밧게된市俄古惡漢黨巨魁「創날박는』알、카보네의親父『라지스라윗치、카브윗치』老人은自己아들의將來를생각하고애쓰든남어지요새獨逸汽船『베루렝』號로 멀고먼米國을向하야떠나게되엿다는말이다이老人은이前부터 伊太利사람『알、카보네』는本名를 『카보윗치』라고하는洪牙利人임니틀님업다고主張한다 『카보네』가法廷侮辱罪와酒類의秘密取引으로 警察의探聞된바되엿다는말을듯고 自己를아모렷케든지 해달나고 自首하엿다고하는律義者다 그러나一般으로 傳하는말을듯건대『카보네』는所謂『父親』의이와가튼主張을否認하고 어디까지伊太利人이라고主張한 이『라지스라윗치』는正直한商人으로 洪牙利의一農村에서 그의딸인『카보네』의누의와가티살고잇는데 만世界的名聲을갓고잇다할지라도 自己아들이法律上罪人이란말을듯고는 가만잇슬수가업서한바탕意見이라도 陳述해보리라는눈물겨운父母愛에서 이가티渡米를斷行한다하는것입니다

라듸오 七月十一日

午前一〇時五分 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一〇時四五分 料理『새오권유어』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뉴―스
午後〇時一五分 유―모어『당신을생각하면』諸口十九一行
一時 都市對抗野球朝鮮豫選(京城對全木浦戰實況)(京城그라운드) 三時四五分 뉴―스 公示事項 四時五分 龍山鐵道對全大邱戰實況(上同) 職業紹介事項 今夕順序發表 六時三〇分 英語講座 七時 뉴―스 公示事項 翌日順序發表 七時三〇分 스포―쓰講演 宮田保 九時 바이오린獨奏(B) 바이오린、알레산더―、모기레뜨스키― 피아노伴奏 나다지다 로히테에르허 九時二五分 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時報 九時四五分 南道短歌合唱 金蘭香 金小香 鼓手 韓成俊

映畵小說 人間軌道(87)
城北學人 安碩柱 畫

부부 【二】

영희는 아조실망된사람모양으로 맥이풀려서 쎗파랏케질린얼골을 숙이고잇다

『비―― 명심하고말고요―그럿치만 나는 당신을 볼수가 업서요 지난일은 모두가죄이죠아뎟서요 당신에게대한죄요―그러니 나는 당신이나를 버리지만안으신다면 어느때까지든지 빗들겟세요 버리신대도 나혼자만이라도 직히겟세요 나를길른가정이 불순한가정이엿고 나의주위가모다나를그러케 되지안으면안되게맨드럿든 까닭도잇서요 그러나 당신의 말가치 나는 어리석엇든것입니다 세상은언케나 나를행복되게만 맨들줄아럿서요 그망상이 여지업시쌔지고마럿습니다 나는벌서 파멸의길로떠러진것을 쌔다럿습니다 그러니 지금누구의게구원의손을바라겟습니가 다만당신이예요 그러나 나는당신의게내몸을건저달라고 할면목이업습니다 그러나 내가혼자라도 당신을직히고잇다면 그것만에라도 나는구원을어든것일것입니다 어머님도저러케 변세에비해서는 너무도로쇄하셧고하니 오늘이나 래일이라도 도라간다면 혈혈단신 아니이뱃속에서나아올아이를엇고 류리할생각을하니 압길이 캄캄하고슯흠니다 이아이라는것을 당신도의심하실것이예요 그러나나도 그것을잘알수도업습니다만은 그게뉘아이든 한개의새생명입니다 그어린아이에게는 제가뉘 자식이고아니고가 관계가업슬것입니다 그러나게상에서는 죄악의씨라고하겟지요 왜!사나희들은 못녀자를 롱락하야 자긔들자신이말하는 죄악의씨를쌔려노코도 그사나희들에게는 이세상이 죄이라는 패를 다라주지안습니가? 정조라는것이 녀자에게만서야한다면 사나희에게는 왜그가잇다가? 나도사나희들이 살기조케맨든세상에 업습니다 긔들―녀자입니다 이말삼은당여나게 만하는말은아니에요 신예사나회에게하는말이에요 그세나 여보세요 나는당신을사련하고잇습니다 [illegible] 하는대로 애듯하게당신이 그리워요 그럿라고지금에내가 어떠케당신의몸에매달려서 사랑을밧을수가잇겟습니가?……』

영희는 말끗을맷지못하고서 럭、터지며 흙흙느겨우는것이다

상근은 영희가 흥분되여외치는그말에 감격하엿든지 업되여우는 엿희의웃둥을 쎄안아가지고 이르키여안치며 그를힘주어 부둥켜안엇다

『나도 그런것쯤은 알고잇는것이라우 나는당신에게사과를밧고 죄를사할만한 권리를갓지안은 사람이요 당신과나와 가튼 한사람의조그만 생활들이모혀서 인류의력사가되는것이오 그러니까 우리도이력사를짓기위하야산다고도 할만하지안소? 그러니까 사람답지못한사람의생활은 이력사에올랏다가도 지워지는것이요 당신과나는 흐려진력사를가진사람들이요 그러니 입이다라나 다시 회복하려면 몸시도어려울것이오 그러나당신은 나보다는 그리큰죄인이아니니까 당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인류전반에대한 죄인은아니니까 또 하기에달린것이요 당신은정 [illegible] 회가그러케큰사명을주지안코 그지금이조선의녀자에게는 이사 [illegible] 쓴글시를짓고 또쓰면더잘쓸수 [illegible] 이아니요 칠판에 쌕묵으로 [illegible] 곡이나 감정만케는 그리큰것 [illegible] 까 우리들부부간의 조그만알 [illegible] 자못한이가만흔니까? 그러니 당자들도 밧을만한 자격을갓 [illegible] 존놓낫잡으면 그권보담더친밀 도잇는셈가티 당신과나와다시 이지내일수도잇지안소?……그요 당신은새로운생활을 창조할 [illegible] 로다라난다면 나는그반머밧 음으로 입이다다를곳에 갓가운 람이니까…… 내게는밋늣것 업고 사랑할것이업다는말이 [illegible] 나아니고도 당신만한용모들 지고 나보다훨신나흔 사람을 날수도 잇시안켓소!』

상근은슯흠에 말이떨리고 그리는발속에 말끗이흐려젓나

『아니 그반너방향이라는것은』

『생을단렴한다는말이겟지 죽 그길로 나는가고잇는것이란말이요』

『비!! 무엇예요』

영희는 상근의가슴에매달리여 우름에커진음성으로부르지젓다